자치 브리핑

광주시 '보호수' 확대 지정 추진

광주시는 산림유전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수를 확대 지정키로 했다.

보호수 지정대상 수목은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老木)과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 고사와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수종이다.

시는 보호수 지정대상 수목에 대해 오는 2월10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에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이 있는 경우 관할구청 산림부서 또는 시 공원녹지과 산림계(062-613-4241)로 연락하면 된다.

보호수로 지정되면 관리청(구청장)은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해 관리하게 된다. 또한, 보호수의 수세를 유지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시는 보호수 확대 지정과 함께 앞으로 보호수의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에는 느티나무 등 10종 72주의 수목이 보호수로 지정돼 있으며 매년 보호수 관리를 위해 외과수술과 생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신안·영광군에 '젓갈타운' 조성

전남도는 25일 도내 젓갈산업 육성을 위해 젓갈 주산지인 신안군과 영광군에 '젓갈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신안 지도읍에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올해 완공을 목표로 생산에서 가공, 유통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한편 관광객들이 젓갈 생산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영광 설도에도 젓갈산업 현대화와 관광상품화를 위해 2012년까지 100억원을 지원, 설도 젓갈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다음 달 생산어업인들이 주주가 돼 생산, 가공, 유통을 전담할 새우젓 주식회사도 설립할 예정이다. 젓갈 유통에 사용되는 용기도 위생적인 플라스틱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젓갈용기 10만개를 지난해 말 어업인들에게 보급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청산도·증도 등 '섬 관광객' 급증

전남 섬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25일 내놓은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운조합의 '2009년 전남 도서지역 여객선 수송실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완도항은 18만6천명(11.3%)이 증가한 165만8천명을 수송했고 목포항과 여수항의 수송인원도 각각 5.8%, 0.6% 늘었다.

섬별로는 완도 청산도가 31만6천명이 찾아 전년(25만1천명)에 비해 25.9%가 늘었고 신안 증도는 37만9천명이 방문해 전년(33만9천명)에 비해 11.8%가 증가했다. 신안 가거도와 여수 거문도도 각각 3.6%, 2.9%가 늘었다.

전남도는 섬, 갯벌, 슬로시티 등 지역이 갖고 있는 특화된 관광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활동을 벌인 점을 가장 큰 관광객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F1 경주장 또 악재

인천시, 영종도에 국제자동차경기장 재추진

사업 중복으로 대회·투자유치 등 차질 우려

인천시가 영종도에 국제 자동차 경기장 건립계획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남도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가 영암에 건설 중인 F1경주장의 향후 장기활용방안을 찾는데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남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 영종지구 오성산 절토지 일대에 국제규모의 공인 자동차 경기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놓고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논의 중이다.

이 곳에 경마장을 유치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경마장 유치에 앞서 수 년 전부터 검토했던 국내외 자동차 경주대회 유치 카드를 다시 빼든 것이다. 당시만 해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방안을 갖춘 투자자가 없어 경마장 사업으로 바뀌었지만, 경마장이 경북 영천으로 가면서 자동차 경주장이 유력한 대안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곳이 인천공항과 가까워 해외관광객 유치에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인근에 대규모 복합관광단지인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연계해 개발할 경우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메인트랙 5km에 이르는 국제공인 자동차경주장과 레이싱스쿨, 대규모 쇼핑몰 건립 등 인천시의 자동차 스포츠 메카 육성계획이 전남 영암의 F1경기장 활용방안과 상충된다는 점이다. 민자유치를 통한 모터스포츠클러스터 등 F1경주장 배후단지 조성 사업계획 등은 전남도와 인천시의 구상이 비슷하다.

인천시는 영암 F1경기장과는 달리 F1대회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A1이나 F3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을 건설할 계획이지만 영암 F1경기장도 이들 대회 유치에 나서고 있어 전남도 F1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레이스가 아직은 대중적 인기를 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남에 이어 인천까지 경쟁에 나서면서 중복투자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국가적 이익이 아닌, 지자체 이익만 추구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천시의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여러가지 검토되고 있는 안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면서 "F3대회 등은 이미 전남이 유치한 경기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타 지역의 사업과 중복될 경우 서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시 아프리카 베냉에 생활용품 지원 아프리카 소국인 베냉(Benin)의 아보메이(Abomey)시로 보내질 조명시설과 에어컨, 냉장고, 책·걸상 등 각종 생활용품이 25일 대형 트럭에 실려 광주시청 앞 광장을 떠나고 있다. 광주시는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나선 아보메이시를 돕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90명 탄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생존자 10명 구조

승객과 승무원 등 90명을 태운 에티오피아 여객기가 25일 오전(현지시각) 레바논 베이루트 공항을 이륙한 지 수 분 만에 지중해로 추락했다.

가지 아리디 레바논 교통장관은 승객 83명과 승무원 7명이 탑승한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가 베이루트 국제공항을 이륙한지 4분 만에 레바논 해안에서 약 3.5㎞ 떨어진 바다에 추락했다고 말했다.

레바논군 관리들은 사고 여객기 탑승자들 가운데 생존자 10명을 구조했다고 현지 언론에 말했으며, 보안 당국 관리는 사고 현장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아리디 장관은 이 여객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 54명은 레바논인, 22명은 에티오피아인이며 나머지 사람들의 국적은 이라크, 시리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전남 펜션 찾은 외지인 376명에 물어보니

"바닷가 별장형 한옥이 최고"

전남도 최강수씨 논문 밝혀

접근성 등 만족도는 낮아

전남지역 펜션 이용객들은 해변에 있는 별장형 한옥 펜션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 이용객들은 또 전남지역 펜션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지만 접근성과 숙박료, 도난·화재 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접근성 및 안전성 제고와 합리적인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강수 전남도 비서실장이 다음달 목포대 대학원(문화관광학 전공)에서 받는 '펜션이용 동기에 대한 이용객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드러났다. 최 실장의 논문은 전남지역 42개 펜션을 찾은 외지 이용객 376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남지역 펜션 이용객의 선호도 및 만족도에 대한 첫 심층조사라는데 의미가 있다.

논문에 따르면 전남지역 펜션 이용객들은 주로 사무직에 대졸 기혼자들로 월평균 소득은 절반이 넘는 56.9%가 101만~300만원이었다. 이들은 또 계절적으로는 여름(40.7%)에 해변(39.4%)과 산·숲·계곡(39.1%)에 있는 펜션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선호하는 펜션은 입지에서는 해변(52.9%)이 산·숲·계곡(30.3%)을 압도했고, 건축자재에서는 한옥(39.9%), 형태에서는 별장형(49.3%)이 가장 인기가 좋았다.

이용객들은 특히 펜션 선택시 중요한 항목으로 수려한 자연환경, 위치, 시설 청결도, 친절한 서비스, 합리적인 이용가격 등을 꼽았고 만족도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이라고 답했다.

다만 중요도가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 접근성과 이용가격, 도난·화재 등 안전성을 꼽아 셔틀버스 운영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숙박료를 낮추는 한편 안전시설을 보강해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 실장은 "이용객들의 이용 패턴과 성향이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펜션 및 한옥마을 정책과 일치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가 기대된다"며 "펜션 사업자들도 이용객들의 이런 성향을 감안해 입지 등을 선택하면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금강산 관광회담 내달 8일 열자"

정부 北에 수정 제안

정부는 25일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다음 달 8일 개최하자고 북한에 수정 제안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오늘 오전 통일부장관 명의로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양건 부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개성 관광 관련 실무회담을 2월8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6~27일 금강산에서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의 지난 14일 제안에 대해 수정 제의한 것이다.

정부는 금명간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회담 대표3명의 명단을 북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 전통문 수신자를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양건 부장'으로 명시한데 대해 "김 부장은 아태위 위원장도 겸임하고 있지만 통일전선부장으로서 남북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명의(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로 전통문을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은 각각 2008년 7월과 12월 중단됐다. 정부는 그동안 관광을 재개하려면 박왕자씨 총격피살 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제도화 등 3대 조건이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북한이 26일 개최하자고 제안한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관련 군사실무회담을 2월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이후에 개최하자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연합뉴스